

민주노총, 노동개악저지 12.16 총파업 결의

✎ 홍미리 기자 | ⓒ 승인 2015.12.08 19:08

“재벌들의 청부입법 노동개악 박살내자!”...강신명 경찰청장 “24시간 후 한상균 끌어내겠다”



▲ 민주노총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노동개악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 2천여 명이 노동개악 저지와 16일 총파업 성사를 결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박근혜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12월16일 전면파업을 확정하는데 이어 전국지역 확대간부들이 집결해 임시국회 여야 노동개악 2차 야합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12월 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전국지역 확대간부 2,000여 명이 참가해 박근혜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12.16 전면파업과 총력투쟁 태세가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13만의 민중이 분노해 일어난 11.14를 빌미로 대통령이 우리를 IS라고 하고 소요죄를 적용하겠다며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몰아 공안몰이를 하면서 노동개악을 강행한다"고 전하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모레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면서 "새정연도 다르게 없이 일주일 전 민주노총 임원과 가맹조직 대표자들에게 노동법 개악을 임시국회에서 안 하겠다고 약속한 후 몇 시간도 안 돼 뒤집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12월 4일 비상중집을 통해 12월 16일 전면파업을 결의했고 위원장 지침에 따라 파업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12월 15일까지 모든 조직이 총파업 태세를 갖춘다"면서 "분노한 노동자가 투쟁해서 이 땅 노동자의 미래와 삶을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회를 하고 있는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 민주노총은 16일 1차 전면파업 후에도 노동개약 법안을 강행할 시 2차, 3차 연속적인 총파업을 상정해두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의 의료민영화와 노동개약을 규탄했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1차산업을 제외한 서비스산업 전체를 산업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 한다”고 말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까지 국회를 압박하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약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국회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금속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권과 자본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며 민주노총을 탄압한다”면서 “싸우지 않으면 그 무엇도 지켜낼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하고 “금속노조는 오늘 집회 후 중집을 열어 16일 파업을 결의하고 민주노총 선봉부대로서 총파업에 복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이 비정규직 현장발언을 통해 “이곳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년 천막농성을 벌이며 차별을 시정하라고 외치던 자리”라고 전하고 “그런데 박근혜정권이 재벌의 요구를 받아 600만표를 잃어도 좋라며 노동자에게 전쟁을 선포한 이 싸움은 차별을 하나 없애는 그런 싸움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민주노총이 지금 싸우지 못하면 1000만 비정규직이 2000만으로 늘어나고, 노예의 삶이 나 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되물림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재벌들의 청부입법 노동개약 박살내자!”

“가자 총파업! 분쇄 노동개약! 분쇄! 공안탄압”

“동지를믿고 나를믿고 가자 총파업!”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약 박살내자!”

“재벌곳간 탈탈털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라!”

“의료민영화 배후조종 박근혜를 끝장내자!”

“총파업 총궐기로 노동개약 박살내자!”

“기간제법 파견법 즉각 철폐하라!”

“민영화-테러방지법”, “노동개약 여야야합”, “살인폭력-공안탄압” 등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돌파해야 할 것을 적은 현수막이 뒤에서부터 노동자들 머리 위로 펼쳐졌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으로 이 악법들을 막아내자고 결의하며 악법현수막을 찢는 상징 의식을 펼쳤다.

“국민들이 테러범이나? 테러방지법 즉각 중단하라!”

“노동개악 어림없다 총파업으로 끝장내자!”

“공안탄압 살인정권 박근혜를 끝장내자!”



▲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이 새누리당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을 일삼고 있는 박근혜-새누리당을 규탄하며 거리 행진을 하는 민주노총. © 변백선 기자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산업은행 앞에서 새누리당까지 행진을 벌이며 온갖 악법들을 강행 추진하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시키는 박근혜-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노동계약 중단하라!”
“국정교과서 중단하라!”
“파견법확대 중단하라!”
“기간제법개정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노동탄압 중단하라!”
“공안탄압 중단하라!”
“비정규직확대 중단하라!”

“쉬운해고 중단하라!”
“평생비정규직 중단하라!”
“노동계약야합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교육시장화 중단하라!”
“공공성파괴 중단하라!”
“서비스발전기본법 중단하라!”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재벌책임 강화하라!”
“밥쌀수입 중단하라!”

“비정규직 고통주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노동악법 강행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재벌의 청부입법 노동계약 중단하라!”



▲ 새누리당사 앞 정리집회. © 변백선 기자



▲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합성을 지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지난 12월 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12월16일 전면 총파업 돌입을 비롯해 노동개약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농성과 여야 압박투쟁을 벌이며 현장 노동자를 파업을 조직하고, 대국민 선전활동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 16일 민주노총은 전국지역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어 노동개약 저지를 외친다. 이에 앞서 한상균 위원장은 투쟁방침 1호를 발동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전면파업 이후 투쟁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다.

16일 전면파업 이후에도 노동개약 법안이 강행될 경우 민주노총은 12월 21~24일, 28~231일까지 2차, 3차에 걸친 연속 총파업도 상정해 두고 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들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총파업 투쟁태세를 갖춘다.

단위사업장들은 총파업 결의를 완료하고, 출퇴근 선전전과 중식집회, 총파업 현수막 달기 등을 실천한다. 산별노조 등 가맹조직은 단위사업장 투쟁집행을 점검하며, 주요 사업장을 집중 조직하는 한편 업종 특성에 맞는 현장과 대국민 선전에 나선다. 지역본부도 지역별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주요사업장 총파업을 조직하며, 지역 선전전 등에 각각 집중한다.

한편 오늘 오후 3시30분 경 강신명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4시간 내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경찰력을 동원해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개약을 중단할 때까지 조계사에 있을 것이며 노동개약이 중단될 경우 자진출두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6시부터 긴급중집을 열어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백남기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조계사 앞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시도와 출두강요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조계종이 안아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금일 조계사 신도회는 한상균 위원장을 끌어내겠다고 관음전에 난입하기도 했다. © 변백선 기자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